겁내지 마라! 모든 것은 한생각에 달렸다

☞ 21면에서 계속

음 자체가 둘이 아니요, 생명 자체가 둘이 아니니 살아나가는 그 자체도 둘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체가 모든 것을 해 나가는 데는 한마디로 말한다면, 이것이 엄청난 문제로 비화될지도 모릅니다마는 정녕코 그럴 수 있다는 거를 증명해서 내놓을 수 있는 여러분의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즉 말하자면 은하계도 우리 한 점의 마음에서 좌우할 수 있다는 얘깁니다.

그러면 우리 지구를 지금 지구에서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앞으로 진화력으로써 진화를 시킬 수 있느냐는 겁니다. 미생물에서부터 나오던 그 물질, 그 생명들에 의해서 이 모습으로도 나오고 저 모습으로도 나오고 쓸데없는 모습으로도 나온 것이 허다히 많습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해를 끼치는 것도 있고 이익을 주는 것도 있고 그렇게 천차만별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기에는 과학이 발전이 되고 이랬지만 그건 유전자의 발전이지 무전자로 하여 유전자로, 유전자로 하여 물질로 나온 것은 아닙니다. 인간이 몰라서 그렇지 모든 게 무전자가 있기 때문에 무전자는 수만 개를 해 놓을 수도 있고 수만 개를 없앨 수도 있는 것이 바로 무전자이며, 또는 유전자라는 것은 수만 개를 만들 수도 있지만 그만들 수 있는 자체, 그 무전자를 없앨 수는 없는 겁니다. 유전자는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전자로 하여금 또 수만 개를 만들 수도 있는 그러한 신비한 연구를 해서, 생물학자도 그렇게 연구를 했고 철학자도 또는 과학자도 그렇게 연구를 했습니다마는 이 물질 자체가, 지수화풍 자체도 모두가 생물 아닌 게 없습니다.

그럼으로써 지금 현재에 나가고 있는 이 마음들이 전부, 무슨 말세가 됐다는 둥 무슨 파동이 온다는 둥, 지금 스위치 하나만 누르면 풀 한 포기 생명도 다 앗아진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사실이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거 조절을 누가 하는가. 그것은 대천세계와 더불어 그 속의, 한마음의 한 점의 도리에 달렸다고 봅니다.

지금 살아나가는 이것도 과학이 발전이 돼서 좋다고들 하는데 우리가 좋다고 하기 이전에 좋은 거는 좋되 만약에 생명이 많이 앗아진다면, 우리들이 없고 무슨 발전이 필요하겠습니까? 우리들이 있고 존재하면서, 지속되면서 발전을 하는 것이 근본의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은 모든 것대로 물질로다가 여러 가지 나오는 거를 무전자로서의 그 유전자의 능력으로, 또는 현실에 물질로 나온 우리 인간의 한 점의 마음이 그 모든 쓸데없는 거는 없애고, 진화시켜서 모습을 없애는데 그 근본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없앤다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그 차원을 진화를 시키면 바로 딴 물건으로 나올 수 있다는 얘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 개를 축소해서 하나로 만들 수도 있는 겁니다. 쓸모 있게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물질로서의, 물질과학으로서의 쓸데없는 거 만 개를 버리고 한 개를 세계적으로 쓸모 있게 만든다는 것과 같습니다. 무루에서 그렇게 만들 수 있어야 유루의 물질로다가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삼합이 똑같이 균형을 맞잡아 나가면서 균등하게 항상 지혜가 무기가 돼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자동적인 능력, 진화력 또는 전자력 이 모든 것이 여러분 몸에도 다 오관을 통해서 오온의 그 뜻이,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그 능력이 다 주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축소해서 좋은 물질로서 나와서 우리가 한마음 한뜻으로서 이익을 서로 도모하면서 한마음으로 돌아가게 만들 수 있는가 하면, 우리가 이 무전자로서의 자원을 끌어들인다면, 예를 들어서 굼벵이가 매미가 되는 것은 알고 있으나 무전자로서 어떻게 매미가 되는지 그 과정, 그 찰나는 모릅니다, 모두.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는지 모른다 이 소립니다. 그래서 거기의 첨단을 넘어갈 수 있어야만 된다는 문제가 바로 우리가 공부하는 것의 결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람 사는 데에, 엊그저께도 얘기했습니다마는 굼벵이의 식구들이 한마음, 한뜻, 한 식구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그렇게 한 식구기 때문에 우리는 멸종하지 않는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겁내지 마라. 모든 것은 한생각에 달렸다." 이 소립니다. 어저께도 얘기했지만 매미가 됐다고 해서 이 매미는 자기가 굼벵이었는 걸 모르고 굼벵이의 식구가 자기의 식구였다는 걸 모르고 또 자기가 지금 매미의 식구가 된 거를 매미는 매미대로 모르고, 차원에 따라서, 바로 계발되는 데에 따라서 진화가 돼서 모습을 바꿔서 자꾸자꾸 생산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 인간도 그렇게 해서 나왔으면 인간의 참뜻을 알고, 우리가 그 참뜻을 안다면 영원한 무루의 그 진화력이나 무루의 그 참, 무전자를 알아서 그 무전자의 뜻에 의해서 전부 한 우주간 법계를 통하면서 자동적으로 용을 할 수 있는 한생각이라는 것이 그렇게 거북상스럽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7차원의 차원을 지구에서 꼭 가질 거라고 믿어 마지않습니다.

우리는 지금부터가 문제가 아니라 삼 년 전서부터 이 계발을 하는 데에 문제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그렇게 마음을 쓰고 공부하는 데에 대해서는 반드시…, 우리 중세계의 은하계가, 가까이 있는 그 은하계가 지금도 한 몇 미터가 아래로 내려왔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몇 미터라기보다도 지금 킬로수로 말한다면 한 5킬로나 6킬로, 7킬로 이렇게, 9킬로까지도 내려올 수 있는 겁니다. 내려온다면 우리는 그렇게 7차원의 맞이를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자원력도 그렇게 앞으로 점차적으로, 차원적으로 자꾸자꾸 이렇게 활동을 하게 된다면 모든 게, 어떠한 별성 하나하나가 우리의 생명 아닌 게 없고 우리의 몸 아닌 게 없습니다. 우리의 형제 아님이 없고 우리 부모 아님이 없고 우리 동생 아님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마음 한뜻이….

> 이 주인공이라는 것은
> 어떠한 목표가 세워져 있지 않기 때문에
> 천차만별로 나투기 때문에, 그리고 옮겨 가기 때문에
> 주인공이라는 걸 아셔야 합니다.

불이 말입니다, 산불이 나 보십시오. 먹을 게 있으면 수천수만 톤을 막 그냥 집어삼킵니다. 그런데 먹을 게 없으면 그렇게 힘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 원자의 능력이 없다면, 그렇게 불이 타 들어가다가 불씨가 온통 산을 다 집어먹을 수도 있는 건데 능력이 없다면, 바로 거기에 먹을 게 없다면 그냥 시들하게 꺼져 버리고 말듯이, 우리 인간의 마음도 항상 체가 없는 마음이 그렇게 능력이 있는데, 그 주어져 있는 것도 쓰지 못하고 있는 것은 자기가 계발을 못했기 때문에 먹을 게 없다는 얘깁니다. 할 수가 없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한마음의 티끌처럼 돼 있는 그 불씨가 우주 삼천대천세계를 집어삼키고도 남음이 있다는 그 여건의 언어는, 여러분의 능력에 따라서 바로 그런 언어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스위치 하나를 눌러서 하는 것도 인간의 조작이라는 걸 아셔야 합니다. 스위치 하나를 눌러서 그것을 죽이고 살리는 것도 사람의 한생각에 의한 조작이라는 생각을 할 때 누구나가 자기 죽자고 그 스위치를 누르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을 다 집어삼키는 것도, 생명을 앗아 가는 것도 다 한 스위치에 달렸다고 하지마는 죽으려면 자기도 포함돼야만 되는 것입니다. 또 그런가 하면 아주 풀포기 하나 남기지 않고 생명들을 다 죽였다 하더라도 그 생명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모습만 없어졌다 뿐이지 그 생명이 어디 가겠습니까? 우리가 살던 그 차원의 습에 의해서 '혼'이라는 것은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와서도 심어지고 저기 가서도 심어지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원이 튼튼하다면, 원자력이 튼튼하다면 바로 원자로서 전자를 끌어들이면서 그 전자에서 끌어들인 그 자체를 끌어들여서 생산한다면 자원도 풍부하게, 공업도 풍부하게 될 수 있다는 그런 결론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원자가 튼튼치 못한 까닭에 전자로 하여 에너지를 끌어들이지 못한다는 그 말은 무엇인가. 우리는 마음의 공부, 근본적으로 무전자의 들이고 낼 수 있는 광대무변한 그 법을 모르기 때문에 유전자까지만 간 것입니다, 지금. 그러니 무전자에까지 이른다면 우리는 자원을 풍부하게 끌어들일 수도 있다는 그 점을 여러분이 다 아셔야 할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모습이, 모습은 지금 여기 있지만 여러분은 여러분 생긴 모습을 잘 아시죠? 색경을 보시고 면경을 보셔서 잘 아시죠? 내가 키가 크다 작다, 어떻게 생겼다 이러는 거를 말로는 증명할 수 없지만 뜻으로는 다 알고 계시죠? 내가 얼마만치, 어떻게 생겼다는 거를요.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모습을 수만 개로 만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모습으로도 만들 수가 있지마는 여러 사람들의 모습, 선신의 모습, 부처의 모습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의 모습, 어떤 물건의 모습, 모두 알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첨단을 넘어설 수 있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그 모습들의 생김생김과 모든 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에고 둘이 아님이 없이 내가 될 수 있다는 얘깁니다. 이것이 무전자의 바로 자동력이라는 그 뜻입니다. 쓸데없는 생명들이 지금 여기의 자원을 잡아먹고 있는 폭이나 마찬가집니다. 알지 못하게, 보이지 않는 그런 자원을 지금 먹고 지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우리의 자원은 사람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점점 줄어드는 폭이죠. 공기가 탁하게 되고요.

그러는 문제가 우리들의 마음 한생각에 달려 있으니 그 여러 가지 문제는 여러분이 공부하는 데 달려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그 마음을 우리는 전자의 선지식들이 배운 것처럼, 앞서 배운 것처럼 배우셔야 됩니다. 근래에 가르치는 배움이라는 것은 꽁꽁 언 얼음에다가 펄펄 끓는 물 한 바가지 갖다가 붓는 형국이니 봄이 온 거보다는 못하지 않겠습니까? 스스로 봄이 온다면 꽃도 피고 얼음도 녹을 텐데, 창창한 물이 자연적으로 그냥 흐를 텐데 말입니다. 그런데 아주 추운 겨울에 끓는 물 한 바가지 부어 봤자지 뭐를 하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스스로 깨달음으로써 자원이 튼튼하다는 얘깁니다.

그러니 인제는 기복을 벗어날 때도 되지 않았습니까? 기복을 벗어나서 내 원자에 근본적으로 그 능력이 주어져 있다는 것을 깨닫고 해 나갈 수 있어야만이 내 몸도 지탱하고 잘 끌고 다닐 수가 있고 남의 몸도 좀 끌어 줄 수도 있는 문제가 나오지 내 몸을 끌고 다니지 못하는데 남의 몸을 어찌 끌고 다니며 내가 길을 모르는데 남을 어찌 리드해 나가겠습니까. (녹음 안됨)

오늘 여기에 더 이어서 얘기를 하려다가 그만 그 길을 놓쳤습니다. 까맣게 그냥 길을 놓쳤습니다. 하, 그랬으니까 오늘 요것으로써 끝내면서 여러분의 질문을 들어 보고자 합니다.

어저께도 얘기했지마는 이 주인공은 어떠한 목표가 세워져 있는 것을 주인공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세워져 있지 않기 때문에, 천차만별로 찰나찰나 나투기 때문에, 그리고 옮겨 가기 때문에 주인공이라는 걸 아셔야 하고, 여러분이 남한테 화두를 받아서 공부한다면 절대적으로 은산철벽을 넘지 못하고 뚫지 못한다는 거를 진짜로 아셔야 할 것입니다.

못났든 잘났든 자기, 참자기로부터 그 철벽은 뚫릴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한 것이 없다 하는 것은 그렇게 찰나찰나 자기가 화해서 나투니까 내가 한 것이 없다고 말을 하지마는 만약에 그 모태인 내가 없다면 무엇이 있겠습니까? 나로부터 이 세상이 모두 생겼고 나로부터 이 세상을 알았고 나로부터 이 세상을 알았으니까 했고, 이렇게 왔습니다. 여러분은 못난 게 아니고 능력이 없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달렸고 생각하면서 밀고 나가는 데 의의가 있고, 생동력 있고 또 삶의 보람이 거기에서 오는 것입니다.

※위 법문은 대행 선사 법문집 《허공을 걷는 길》 중 1986년 4월 18일 일반법회 법문의 일부를 정리한 것입니다.

해양심층수 100%로 만든 청정, 안심 건강소금
MQ해양高미네랄로 가족건강을 지키자!



엠큐 해양 高 미네랄 세트



MQ해양고미네랄은..
– 강원도 고성에서 100% 해양심층수로 탄생한 고미네랄 소금
– 해양심층수의 모든 미네랄을 담은 MQ해양고미네랄
– 일반 정제염 대비 마그네슘 380배, 칼슘32배, 칼륨 49배 등 풍부한 미네랄 함유
– 일반 정제염 대비 나트륨이 23% 이상 적은 저나트륨(염도75%) 소금
– 한포(3g)를 물(500ml)에 타서 마시면 경도 1,000이상의 고미네랄 워터로 변신하는 미네랄 워터용 소금

제품구성 MQ해양 고미네랄 스틱 2박스 (31포 x 2박스) + MQ해양 고미네랄 1병

특별보급가 75,000원

엠큐 눈소금 세트



매일매일 건강에 도움을 주는 필수 미네랄을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는 엠큐눈소금, 매일 모든 음식에 넣어 먹는 소금을 바꿔 건강을 지키자!
해양심층수 이외에는 아무것도 넣지 않았습니다. 해양심층수 100%를 사용하고, 순간공중결제염기술을 이용하여 제조한 소금 엠큐눈소금은 요리의 맛을 살려주고 건강을 드립니다. 엠큐눈소금으로 온가족의 맛있는 식사와 건강을 지키세요.

제품구성 고운소금 150g x 2EA + 굵은소금 125g x 1EA = 425g

특별보급가 52,000원

김오곤원장의 엠큐 해양 高 미네랄 침향





세계 3대 향중의 하나로 불리는 그 귀한 침향,
김오곤한의사의 배합기술로 엠큐눈소금과 만나 엠큐해양고미네랄 침향으로 탄생

– 건강을 한번 더 생각하고 만든 미네랄과 침향제품으로 성분과 맛이 입증
– 김오곤한의사의 엄선한 배합 기술을 토대로 탄생한 한방과 과학이 어우러진 제품
– 낮은 염도, 고미네랄 그리고 침향이 한 포 한 포에 들어 있는 제품
– 순간공중결정제염기술, 깨끗한 미네랄의 참 맛, 침향의 건강한 향과 맛까지 포함한 신개념 제품
– 한 포 (3g)을 물 500mL에 타면 맛있는 고미네랄 침향 워터로 황홀한 변신

제품구성 279g (3g x 93포) / 원재료 : 소금 93% (해양심층수 100%), 침향 7% (인도네시아 수입산)

특별보급가 125,000원

※**순간공중결정제염기술이란?** 해양심층수를 미세한 안개 상태로 쪼개어 공기중에 분사한 후, 열풍을 불어 넣어 수분을 순간적으로 증발시키는 기술로 이렇게 해서 해양심층수의 수분을 제외한 모든 미네랄을 소금에 포함시키고, 눈처럼 아래로 떨러뜨려서 소금을 제조하는 기술

구입처 : 마하몰 (http://www.mahamall.co.kr) 문의 : Tel 1688-9099 입금계좌 :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